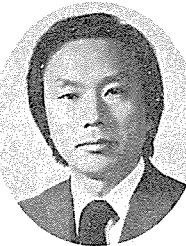


물리치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나는 너요, 너는 나다

全北支部長 申 鴻 澈

〈나〉 그 자체란 없으며 오직 근원어 〈나-너〉의 〈나〉와 근원어 〈나-그것〉의 〈나〉가 있을 뿐이다. 〈나-너〉는 관계의 세계를 세우고 여기에는 세가지의 영역이 있다. 첫째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며, 둘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고, 세계는 정신적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이 세상의 어느것 하나라도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다. 순전히 자기 한 몸, 자기 일만 생각하는 에고이스트는 부끄러워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지 않다하여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게 한 옴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한 옴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나와 너의 관계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들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으므로 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육근(六根)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아 있는 현실에서는 범(梵)과 아(我)의 일차란 없다. 현실은 오직 작용에 있어서 존립하며 그 현실의 힘과 깊이는 그 작용의 힘과 깊이에 있어서 존립한다. 또한 「내적」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상호작용이 있을때에만 있는 것이다. 가장 강하고 깊은 현실이란 하나로 된 나와 무한한 너의 작용 가운데 존재한다. 나와 나는 마주 서있다. 그러나 나는 〈너〉와의 직접적인 관계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렇듯 관계란 선택받은 것인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며 수동적인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며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이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하나의 가족에 속하게 되며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인간성에는 두개의極이 있다. 모든 사람은 二重의 「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격이라 부르고 개적 존재의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적 존재라 불리우며 인격과 개적존재 사이에서 진정한 역사는 이루어진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오늘날 가장 큰 질병은 모든 사람으로 부터 소외 당했으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최대의 죄악은 사랑과 자비심의 결여이며 착취, 부패, 빈곤과 질병이 시달리면서 길가에 팽개쳐져 있는 이웃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말하였듯이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너와 나는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 해당되는 한자어 〈人間〉은 사람과 사람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은 혼자자 아닌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속에서 뜨거움이 생기고 그 뜨거움 속에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사회의 힘을 창출해 내는 법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을 도울수 있는 사람은 기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인 경험이나 감성적인 반응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남이 나를 악으로 대하거든 나는 선으로 대하자. 이때 지혜롭게 악을 조장하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포푸는 “인간란”이란 시에서 “자연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때에 이성은 안내자가 아니라 호위다. 지배적인 욕망을 타도하기 보다 이를 바르게 조절해서 적으로 삼지 말고 벗으로 삼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말했듯이 지혜란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의 아름다운 질서속에 통일되고 종합되고 조화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는 악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악의 뿌리가 두가지 있다. 하나는 소유욕이며 다른 하나는 그릇된 습성이다. 이 두가지를 일러서 무명(無明)이라고 한다.

心為法再 心傳心使
中心念善 即言即行
福樂自造 如影隨形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니 마음속에 착한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 처럼」

法句經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이 무명을 마음으로 조절하여 참 삶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밝은 이성의 힘에 의해 무한히 향상될 수도 있고, 본능에 이끌려 한없이 타락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2면계속>

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고 어울려 살면서 인간적 존재가치를 발휘해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므로 인간의 삶은 개인성과 사회성이라고 하는 두가지 축에 바탕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며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관계성의 의미체계를 가져야 한다.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등의 문화적 상징체계를 형성하여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뜻을 확립해 간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야하는 시련과 고난의 나그네길이다. 시련이 있기에 승리의 감격이 있고 고난이 있기에 영광의 희열이 있다. 아무리 죽음과 고통과 비극이 있어도 태양과 꽃과 사랑이 있는한 인생에는 행복이 있다.

삶이란 최상의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원각경보안보살장 <圓覺經 普眼菩薩章>에 나오는 "환마음이 청정(淸淨)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이런 깊은 뜻을 음미하면서 나는 너요, 너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상부상조, 협심협력하여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곧 세계 정진합시다.

(이리원광대학교 물리치료과장)

PROGRESS NOTE 쓰는 법

연세 의료원
재활의학과 김 인 숙

서 론

일반적으로 우리 치료사들은 치료에 열중하다보니 Charting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못하게 되었고 Progress Note를 쓰는것이 원칙인줄 알면서도 내일부터 내일부터 하다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Progress Note를 잘 쓰고 있는 치료사들이 과연 얼마나될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미약하다는 것을 모두가 시인할 줄 압니다. 물론 쓰려고 해도 막상 무엇을 써야할지 망서리다가 중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질환별로 Progress Note 쓰는 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먼저 안면신경마비부터 하겠음)

Bell's Palsy 환자를 위한 Charting (Central Type 제외)

A. Initial Evaluation

1. Diagnosis
2. Past or Personal History
3. 임상 증상을 Check한다.
 - ① 눈물이 나온다. 또는 눈이 감기지 않는다.
 - ② 세수할 때 비눗물이 들어가서 비누세수를 못한다.
 - ③ 양치질 할때 마비된 쪽에서 물이 새어나온다.
 - ④ 음식물이 마비된 쪽 입안에 끼어서 파내야 한다.
 - ⑤ 음식맛을 모른다거나 모래알 씹는것 같다.
 - ⑥ 혀의 감각이 마비된 쪽과 차이가 있다.
 - ⑦ 혀가 짧아지는 것 같다.
 - ⑧ 음식을 잘 씹을 수 없다.
 - ⑨ 음식을 삼키는데 힘들다.
 - ⑩ 말하기가 힘들다.
 - ⑪ 머리가 아프다.
 - ⑫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참고 :

- ① 눈물이 계속 나오면 안과에 의뢰함.
- ② 비누세수 할때 조심하도록 함.
- ③ 양치질 할때 천천히 마비된 쪽을 보호하면서 실시 하도록 설명함.
- ④ 마비된 쪽으로 껌을 씹도록 해본다.

- ⑤ 음식맛, 혀의 감각, 음식 삼키기가 힘들때는 주치의사에게 연락할 것
- ⑥ 머리가 계속해서 아프거나 불면증이 있을 때에도 주치의사에게 연락할 것.
4. Onset day (발병일)
5. Cause (찬바람, 과로, 불면증 등등)
6. Previous Treat (다른 곳에서 치료받은 사항, 치료 종류, 기간, 약 등)
7. Muscle Testing to Involved Face. 근육이름

- Frontalis (이마주름)
- Corrugator (양미간 주름)
- Procerus (코등에 주름)
- Orbicularis Oculi (눈을 꼭 감는다)
- Nasalis (Alar Portion) (콧구멍 확대)
- Nasalis (Transverse Portion) (콧구멍 좁힘)
- Risorius (입다물고 일직선)
- Zygomaticus (미소 짓기)
- Orbicularis Oris (입술 오무림)
- Mentalis (아랫입술 밖으로 내뺌)
- Buccinator (입 양쪽 끝에 힘줌)

참 고 :

- ⓐ Face muscle testing 시 Poor와 Good 없음.
Zero (No Contraction)
Trace (Minimal Contraction)
Fair (Performance of Movement \bar{c} Difficulty)
Normal (Completion of Movement \bar{c} Ease-Control)
- ⓑ 줄을 맞추어서 기록할 것 (보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8. Problem list 기록
- B. Treatment
 1. Hot packs or Infra-red 10~20분
 2. EST (Faradic or Interrupted Galvanic Current 중 사용한 Current 기록)
 - ① Intensity (몇 Volt의 몇 MA (기계이름))
 - ② Response
Good (Completion Contraction)
Fair (Contraction과 근육마다 약하지만 일정할때)
Poor (Slight Contraction, 근육마다 일정하지 않을 때)
 - ③ 치료시간
각 Motor Point 5~10번씩 몇회 등

지 부 소 식

* 중부지부소식

I. 보수교육

중부지부 84년도 2차보수교육이 지난 4월 27일 국립의료원 물리치료실에서 열렸다.

高大 물리치료과 교수이신 박찬의 선생님의 열강과 참석자들의 진지한 수강으로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 목 : 통증의 조절(Frozen Shoulder)

연 사 : 박찬의 선생님

장 소 : 국립의료원 물리치료실

참석자 : 23명

II. 지부총회

중부지부 보수교육이 있은 후 지부총회에서는 84년도 집행부 임원선출과 결산보고가 있었다.

지부장과 총무에는 現 지부장과 총무가 유임되고 새로이 부회장 1명, 감사 1명이 각각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다.

다음,

지부장 : 강정구(울지병원) - 중앙회부회장

부회장 : 전상명(금강병원)

총 무 : 이행규(울지병원)

감 사 : 박순홍(한일병원)

III. 기 타

그동안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시던 이정근(469) 선생님이 백병원으로 옮기시어 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 이정근 선생님은 6월 3일 화축을 밝히실 예정이여 경사가 더욱 겹쳤다.

○신입회원

국립의료원 : 김희환(No : ?) } 확인했어요
금강병원 : 유길환(No : ?)

국립의료원 : 김희환(No : ?) } 확인했어요
금강병원 : 유길환(No : ?)

* 북부지부 5월 보수교육

북부지부에서는 1984년 5월 17일 19:00, 서울대학교병원 B강당에서 Frozen Shoulder에 관하여 박찬의 선생님의 강연으로 실시하였다.

* 남부지부 소식

남부지부 보수교육이 지난 4월 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한강성심병원에서 미 8군병원에 계시는 석 일현 선생님을 모시고, Sports PT에 관하여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실시하여 Sports PT의 새로운 인식을 통한 전반적인 교육과 이론 및 실습을 습득한 응급처치술등, 임상에서의 직접적인 강론을 하셨습니다.

(회원동정)

- (1248) 맹 난 영 인천지부로 전출
- (327) 김 명 혜 전입
- (443) 박 혜 숙 (광명병원) 전입
- (1305) 유 정 희 (도영병원) 전입
- (797) 이 한 익 전입
- (1598) 백 숙 현 전입
- (1536) 정 귀 자 (강남성모병원) 전입
- (1639) 오 병 순 (국군수도통합병원) 전입

삼육재활병원에 근무하시는 이연진(307) 선생님께서 4월 30일 백병원에서 둘째 아드님을 보셨습니다.

삼육재활병원에 근무하시는 최우선(1127) 선생님께서 동문이신 김미숙(1505) 선생님과 5월 22일 서울예식장에서 화축을 밝혔습니다.

* 충청지부소식

정기월례회(84. 5. 11)

전체 회원 회의에서 전회원이 참석해서 취업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전회원의 공통된 의견은 서로의 권익과 우리들의 위치를 보다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부의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충청지부는 취업시에 반드시 본지부 등록순에 의해서 취업이 되도록 결정되었다.

체육대회(84. 5. 11)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저마다의 기술을 발휘하여 비지땀을 흘리며 웃음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충청지부 회원간의 단결과 우의를 돈독히 했다.

이날 탁구대회는 남녀 단식·복식순으로 진행되었고 전회원들에게는 기념품과 우승자에 대한 상품수여가 있었고 탁구대회가 끝난후 전회원들의 저녁식사가 준비되어서 허술한 시장기에 밥 한그릇을 게논감추듯 해치우고 오랫동안 회원간의 정담을 나누면서 뜻깊은 하루가 되었다.

(단식우승) 남 : 박태성 회원, 여 : 윤형숙 회원
(남여복식우승) : 채수성, 윤형숙 회원팀

(회원동정)(결혼)

- 김 성 기 회원(정읍) : 4. 15일
- 김 용 수 회원(이리) : 5. 5일

노-트에서도 찬바람이 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보면 인상을 나무랄 도리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언제 어느때고 저를 찾아준 회원에게, 아니 재학생에게도 냉대를 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고 장담하겠습니다.

앞으로 단독 개설을 하고져 하는 회원은 물론 잠깐 들러 차 한잔을 마시고 싶으신 회원들께서도 서슴치 마시고 들려주시면 반갑게 맞이하여 협회의 얼굴인 회보이기 때문에 실기 어려웠던 내용들까지 허심탄회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문의도 환영합니다.

저외에도 단독개설을 하고 계신 선배들이 많으오니 그분들을 찾아뵙고 몇번씩이고 자문을 받으신 후에 자문내용을 토대로 물리치료실 개설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는 일입니다.

첫째, 내가 과연 단독 개설을 할 자격이 있는가?

둘째, 한다면 P.T의 인상을 흐리게 하진 않겠는가?

셋째, 다른 회원들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겠는가? 등등을 자문해 보신 후에 단독 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습과정을 거쳐서라도 쉬지 말고 경력을 쌓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협회를 끌고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오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끝으로 우리 회원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하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안녕히계십시오.

1984. 5.

(직전회장 백진 올림)

※ 연락처 : 근무처 (032) 84-0906(인천)

자택 (032) 882-7616

자택주소 : 인천직할시 중구 항동 7가 27

라이프비취맨션 2동 1213호

나무가 되자

황 현 숙

젊음이어

높이가 있는 삶을 꾸리자.

수평으로 바닥을 기는 그림자가 되기보다는

수직으로 뻗어올라 그림자를 갖게하는 나무가 되자

땅속깊이 뿌리를 내려 비굴함에 흔들리지 않고

세피에 물들지 않으며 폭풍우치는 날에도 굴함이 없는

나무가 되어

높이가 있는 꿈

높이가 있는 야망

높이가 있는 이상을 가꾸자

진리를 탐내고 의리를 앞세우고

오천년 역사의 자랑스러움을 간직하며

실로 하늘로 치솟아 부끄러움이 없는 나무가 되자

정직과 믿음으로 가지를 키우고

창조와 신용으로 푸르른 잎을 물들이며

책임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먼 훗날

뒤돌아본 세월에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봄을 맞자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에 순응하여

봄이면 봄다운 나무가

여름이면 여름다운 나무가

가을이면 가을다운 나무가

겨울이면 겨울다운 나무가 되자

그러나 사람이여

키 재기를 위하여 발뼘꿈치는 들지말자.

한국병원 물리치료실

회장단 동정 및 중앙회 소식

- 1984. 5. 10 회장단 회의
참석 : 정진우 강정구 배승학
안건 : 이사회 소집에 관한 안건 논의
- 1984. 5. 14 회보 편집회의
참석 : 김정숙이사 홍성열 황현숙
- 1984. 5. 18 제3차 정기이사회

결의내용 : ① ACPT총회 개최에 관한 실무위원회

결성

위원장 : 회 장 정진우

간 사 : 국제이사 표성봉

위 원 : 강정구부회장 오경환

술이사 배승학총무이사

② 물리치료사 단독업무수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에관해 : 백진 직전회장과 김형

섭자문위원에게 위임

추진방법 : 1. 보건사회부에 건의서 발송(5월중)

2. 전국지부 및 병의원을 통한 회원,

환자. 보호자들의 건의서명운동(8월말까지)

3. 건의서명록이 작성되면, 각부처 요소에 탄원서제출(9월말까지 완료)

1984. 5. 19 ACPT 및 물리치료사 단독업무 수행에 관한 간담회

참석 : 백진 양성주 배승학 황용은

1984. 6. 14 정진우회장 : 세계장애자 체육대회(미국 뉴욕주) 선수관리 임원으로 출국예정

일정 : 1984. 6. 12~1984. 7. 1

※ 금번 정진우회장님께서서는 북미 지역에 있는 회원들도 만나게 되며, 이번 기회에 분할회 북미지부 결성을 마무리 지으실 예정입니다.